



에벤에셀 개척장로교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롬 1: 16)

마르지 않는 샘 파라과이 선교소식 26호 파라과이 땅에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여전히 일교차는 심하지만 활동하기는 한결 수월해 졌습니다. 온 땅이 푸른 빛으로 물들어 가듯 에벤에셀 교회를 통한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물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동역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교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으로부터의 반가운 만남

에벤에셀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귀한 동역자님이 선교현장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도우 장로님께서 국제 기드온협회 사역차 수도 아순시온에 오시면서 무리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에벤에셀 교회 주일예배를 참석하시고 성도들과 복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날은 파라과이 아버지의 날로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파라과이 춤으로 환영 및 축하를 하고 예배 후에는 교회 옆에 망고 나무로 기념 식수를 하였습니다. 파라과이로의 여행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이 만남은 모두에게 정말 특별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치과 의료선교팀 방문

한창 날이 춥던 시기에 미국 보스턴의 치과의료 선교팀이 에벤에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파라나 장로교회 (한인)에서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초청하였고, 감사하게도 에벤에셀 교회와 잘 연결되어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이 치과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팀은 기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신경치료 까지 가능한 장비일체를 가지고 와 병원 수준의 진료를 통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비록 1일간의 봉사였지만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아이들도 수백불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딸 히엘 이는 이날 학교를 마치고 와서 오후 내내 통역과 보조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도전과 비전을 얻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및 어와나 올림픽, 달란트 잔치 그리고 전교인 점심 식사

어와나 미니올림픽 : 파라과이는 8월 둘째주에 어린이 날이라 온 나라가 행사로 들석 거립니다. 교회도 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특별한 선물들을 나눕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는 달리 에벤에셀 교회 자체적으로 어린이 날에 어와나 미니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각팀별로 아이들이 열심히 게임에 임해 주었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달란트 잔치 : 올해 주일학교를 시작하면서 달란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매주 아이들은 출석, 성경암송, 전도, 봉사 등으로 달란트를 모았고, 8개월만에 첫 달란트 잔치를 가졌습니다. 시장의 물건은 가득했고, 원하는 물건으로 교환하는 아이들은 한껏 들떠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나라의 풍성함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는 어린이에게 상급이 있음을 강하게 느끼는 날이었을 줄 믿습니다.



세대 통합예배 및 전교인 식사 : 이 날은 세대통합 예배로 다 함께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자주 식사하기는 어렵지만 한가족으로 식탁에 모이니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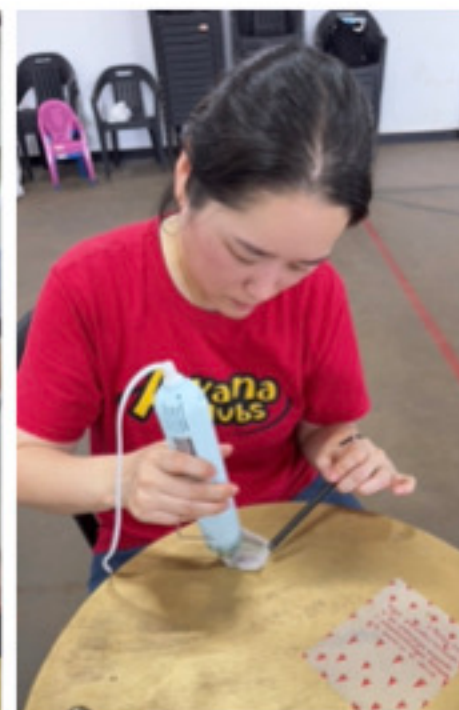


다음세대 사역 : 어와나 클럽 및 S.F.C. 학생신앙운동(STUDENT FOR CHRIST)



영화관람 : 우리 교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난하기에 극장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두 번씩이라도 영화 관람의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과 극장 나들이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극장에 갈 때마다 차량을 빌미(?)로 마띠아스와 비앙카의 부모님을 초청합니다. 마띠아스와 비앙카는 주일아침에 가장 일찍 걸어서 교회에 오고, 순종하고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입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허락으로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후안과 산드라)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기에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의 날 : 파라과이는 입춘이자 청소년의 날(Día de la Primavera y la Juventud)을 한날 동시에 가집니다. 올해는 주일이 바로 입춘/청소년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오전 예배시간부터 정전이 되어 준비했던 행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함께 성경공부 하고, 말씀 키링도 만들었고, 특별히 아내가 한국 음식인 불고기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너겟을 요리했고, 함께 햄버거도 만들어 먹으면서 좀 더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직접 손수 만든 꽃과 특별히 한국에 있는 조카 새봄이가 교회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에벤에셀 교회 SFC를 위해 헌금하여 구매한 선물들을 나누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반가운 손님, 앞으로는 주 안에 한 가족



한번씩 새로운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등록해서 교인이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손님이 교회로 초청되었습니다. 어와나 클럽에서 교사로 섬기는 네이디 자매의 남편인 바르톨로메 형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온 것 입니다. 가끔씩 예배에 참석하는 아들 프레디와 마리아 부부, 그리고 교인이자 네이디의 사돈인 까르멘과 함께 가족 모두가 예배에 참석한 터라 참으로 복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회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으나 성령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잘 정착해서 영접하고

구원의 복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주일에도 일을 하는 둘째아들 주니어도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건 선교사님의 은퇴식



9월 26일 파라과이 선교사로서 36년간 헌신하시고 누구보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며 성육신적 사역을 하셨던 KPM 이정건 선교사님의 은퇴식을 수도 아순시온에서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파라과이를 복음화 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고, KPM 2대 본부장, 1-2대 멤버케어원 원장으로서 오로지 세계선교를 위한 사명에 매진하셨습니다. 은퇴직전까지 자신의 은퇴식은 고사하셨고, 겸손히 그동안 맡은 일을 내려놓으려 하셨지만 후배들이 조출하지만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 동안의

헌신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영적 아버지로서 의지하는 이정건 선교사님은 저희 부부가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셨고, 선교의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동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선교의 마침표를 찍을때 까지 이 은혜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정건 선교사님의 남은 여생에 동행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그 동안 이곳 파라과이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후배들이 그 헌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숙제



이정건 선교사님이 은퇴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시기전 한국에서 선교팀이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국경지역에서 사역 하기에 이곳에 방문하시는 팀의 가이드 역할을 종종하기도 합니다. 선교팀과 동행하면서 존경하는 이정건 선교사님과 함께 여행하며 또 많은 부분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이 선교사님의 형제요 자매로 지내던 미겔과

도라는 국경 넘어 브라질 포스두이과수에 살고 있고 자신의 집에 선교팀을 초청해서 함께 방문했습니다(저는 이번이 두번째 방문). 이 부부는 에벤에셀 교회 입당예배에도 이정건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참석하였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중 선교사님께서 이 가정을 저에게 맡기기를 원하셨고, 저는 국경을 넘어서라도 정기적으로 심방을 가서 교제하고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 : < 파라과이 아구아 비바 선교센터 >

지난 2021년도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에벤에셀 교회를 개척하고 고군분투 하고 있을 때, 파라과이 고신 개혁장로교 선교회(종교법인) 산하 잠정적 프로젝트였던 파라과이 선교센터 설립에 대한 책임자로 김상원 선교사가 임명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법인에서 선교센터 부지(약 1000평)를 구매하였고, 현재 한창 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센터 건축 진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센터는 단지 새롭게 세워질 공간이 아닙니다. 그 전신(前身)은 이정건 선교사님께서 믿음으로 개척하시고 섬기셨던 아구아 비바 교회(Iglesia Agua Viva)입니다. 그곳은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삶이 변화되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발자취 위에 서 있습니다.

아구아 비바 교회의 사역 정신과 열정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이제는 이곳 선교센터에서 **보다 확장된 비전과 더 넓은 열방을 향한 시야**로 지역과 열방을 품는 선교 플랫폼으로서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본 선교센터는 파라과이-브라질-아르헨티나의 삼국경(Tres Fronteras)이라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 이루실 복음적 사역과 열방을 향한 비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건축물을 넘어, 선교적 전략이 설계되고, 기도와 훈련이 집결되며, 민족을 향한 파송이 이루어지는 ‘영적·전략적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센터부지 전경



메인동이 위치할 리버뷰 전경



여러 수목으로 구성된 산책로



센터의 아침

에벤에셀 교회의 건축은 현재 진행 중..



에벤에셀 교회는 그 동안 중단되었던 2층 공사가 조금 더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다시 중단 상태 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감당하도록 하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기도의 동역자, 동역 교회들이 에벤에셀 교회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에 늘 든든합니다.

건축헌금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헌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손모아 주시고 영적 힘을 보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가정



알비로하(Albirroja) : 올해 파라과이가 16년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곧 한국과 친선경기도 예정 되어 있는데, 한국과의 경기에서 선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파라과이 대표팀은 알비로하(Albirroja)라고 하며, 알비(Albi)는 하얀색, 로하(Rroja)는 빨간색을 의미하며 파라과이 국가대표팀의 전통적인 유니폼색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저희는 인차다 알비로하(Hinchada Albirroja), 파라과이 응원단 입니다.

우리 가족이 삶과 인생을 바쳐 파라과이와 이곳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곳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비로하는 파라과이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들의 유니폼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복음의 색을 품고 이 나라를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알비로하의 빨간색은 희생과 사랑, 곧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떠올리게 하고, 흰색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아 더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여 복음이 이 나라를 물들이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경기는 잠시, 복음은 영원하다!" (¡El partido es temporal, pero el Evangelio es eterno!)

히엘, 다니엘은 외모만 다를 뿐 파라과이 현지 애들과 다름없습니다. 잘 적응해서 생활하고 있고, 선교지 생활을 통해 장래를 향한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 발표행사에서도 둘다 메인으로 뽑혀 자신있게 발표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성실하여 칭찬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부모님을 도와 여러 부분에 좋은 동역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선교 현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쎬르(CER) 학교 발표현장



치과 선교팀 앤 선생님과 함께

기 도 제 목

1. 다음세대 사역(어와나 클럽, SFC 학생신앙운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2. 현재 진행중인 기초 성경공부 13주 과정에 참여중인 루시아나, 비비아나, 릴리아나, 리사, 난시, 엘레니세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커지도록! 성경공부가 끝나면 세례를 받을 릴리아나 자매를 축복하소서!
3. 현재 진행과 중단의 연속인 2층 공사가 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구아비바 선교센터 프로젝트에 은혜를 주소서!
4. 김상원/김진경 선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겸손과 사랑과 순종으로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도록!
5. 히엘(15세)과 다니엘(12세)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이 삶의 모토가 될 수 있도록!